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등록된 시신기증인들의 사회적 특성

황선중, 이은영, 허영도¹, 허석열², 손현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¹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²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2012년 4월 17일 접수, 2012년 5월 23일 수정접수, 2012년 5월 30일 게재승인)

간추림 : 의학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적정한 기증시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대학의 시신기증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증 희망자들의 사회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충북대학교에 등록된 자료를 분석하고 전국의 9개 대학과 비교하였으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신기증 등록인 128명에 대하여 전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등록인 수는 1999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도 이후에는 의학교육에 충분한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2005년도 이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충북대학교에서는 등록인의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10개 대학의 경우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등록시 나이는 70대가 33.9%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28.9%)와 50대 (22%)가 뒤를 이었다. 가족 중 2인 이상이 등록한 동반 등록은 41.1%가 있었다. 유족의 유골인수 또는 안치시설 방문에 대한 조사결과 유골의 인수보다 대학에 안치한 후 방문하는 경향이 증가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등록인의 생활수준은 중간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1%였으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로 기증하게 된 경우가 77%로 가장 많았다. 향후 가족들의 반대 또는 시신을 대하는 태도 변화에 따라 기증의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경우는 1%이하로 극히 낮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시신기증 등록인 수는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등록인들의 기증 동기는 순수하고 대학에 우호적이다. 대학의 유골 안치시설에 대한 유족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더욱 확대하고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찾아보기 낱말 : 시신기증, 기증등록인, 기증동기, 추모시설

서 론

교육 목적의 인체 해부는 서양의학의 도입과 아울러 1886년 3월 29일 제중원의학교가 설립되면서 시작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2007) 되었으나 해부 실습과 관련한 시신의 수집, 보관, 처리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Choi 2009). 해부학교육이 처음 시작된 공식기록은 1899년 3월 28일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의학교에 해부학 과목이 개설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002). 이후 1910년경 경성부사(京城府史)의 ‘행려

환자이송에 관한 사항’에 서울 관내에서 행려병자가 사망하면 의학생해부실습용으로 교부하였다는 기록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1997)이 있다. 또한 1929년 세브란스 교우회보에 의하면 경상남도 출생의 오근호가 해부학교육 목적으로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시신기증 사례로 남아 있다 (Yonsei University 1929).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1984년 10월 5일에 50명 정원의 의예과를 자연과학대학에 설치할 수 있는 설립인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1986년 11월 1일에는 의과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1987년 3월 17일에 교사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신축교사 현판식이 있었고 예과에서 의학과로 진입한 학생들에게 해부학 교육이 시작되었다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07). 1987년 4월 2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처음으로 기증된 시신은 사회복지법인 성혜원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한 성○○이다. 1987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확보된 시신은 충

*본 논문은 2010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교신저자 : 손현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전자우편 : hjsohn@chungbuk.ac.kr

충북도 관내 행정기관으로부터 인도된 행려사망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된 시신 가운데 유족승낙에 의한 최초의 시신기증은 1987년 12월 25일에 36세를 일기로 사망한 유○○으로 1987년 12월 29일에 기증되었다. 이후 행려사망자보다 유족 등의 승낙으로 기증이 이루어진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9년 4월 14일에 26세를 일기로 사망한 후 기증된 김○○의 사례 이후 역전되었다. 그 후 유족승락 시신기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져서 2002년 8월 24일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인도된 최○○를 제외한 전원이 유족승낙 혹은 본인이 생전에 밝힌 기증의사에 의하여 시신이 기증되었다. 또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4층에 납골시설 ‘생명사랑 한누리’를 2000년에 설치하였다. 이후 해부 실습을 시작할 때 시행한 위령제와는 별도로 실습이 완료된 이후에 기증인 유가족들을 모시고 의과대학 학생, 교수, 교직원 등이 참여하여 기증인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시신기증을 홍보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시신기증 안내 책자를 제작 하였고, 시신기증 등록증을 기증인에게 발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0년 현재 886명의 사후 시신기증 서약자를 확보하였다.

한편 Lee (2003)는 한국인 시신 기증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시신기증인 107명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을 고찰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신기증운동의 전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후에 시신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신기증으로 의학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시신기증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대학에 등록된 시신기증 서약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자료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도별 시신기증 등록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시신기증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사후에 자신의 시신을 기증할 것을 약정한 사람들의 수를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로 집계하였다. 등록인의 주소지를 충청북도내 시군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시신기증 서약인의 등록 당시 연령 분포와 가족 중 동반서약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령분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등록된 기증서약자의 연령 분포를 30대부터 90대까지 10년 단위로 집

계하였다. 같은 기간에 등록된 서약인의 가족 중 1인 이상이 동반하여 기증서약을 한 경우를 부부와 부부가 아닌 가족이 동반등록한 경우로 조사하였다.

2. 화장유골을 인수해간 유족과 대학의 안치시설을 방문한 유족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해부실습이 모두 끝난 후 화장한 유골을 인수해간 유족과 유골을 대학의 납골시설에 안치한 유족들 중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우를 조사하였다. 추모제에 참여한 이후 명절 또는 기일에 1회 이상 가족이 방문한 경우를 가족의 방문이 있는 유골로 집계하였다. 연도별로 결과를 정리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을 조사하였다.

3. 시신기증인 설문조사

2006년 이후 시신기증을 약정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신기증 등록인 437명 중에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128명에게 전화 인터뷰를 통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은 시신기증을 결정한 동기를 파악하고자 설계되었는데 기증인의 최종학력, 경제적 여건과 생활수준, 장례를 주관할 연고자의 유무, 기증에 따른 혜택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4. 여러 의과대학의 현황 및 비교

충북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의과대학들의 상황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학은 서울의 A대학, 경기도의 J대학과 S대학, 강원도의 G대학, 충북의 C대학, 충남의 H대학, 대전의 N대학과 E대학, 전북의 W대학 그리고 부산의 P대학이다.

납골시설 유무, 납골시설이 있는 경우 설치연도 그리고 연도별 시신기증등록 수와 인수된 기증시신의 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결 과

1. 연도별 시신기증 등록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등록인 수를 연도별로 조사하여 시신기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향후의 변화 추세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시신기증운동을 처음 시작하던 1994년도에는 실적이 미미하였다. 그 후 20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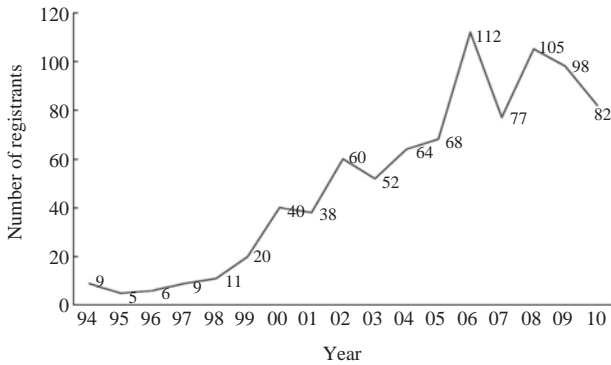


Fig. 1. Annual changes of how many people who registered to body donation program in CBN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에 들어서면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Fig. 1에서와 같이 2003년에 52명이 기증 서약을 하였고 2004년에는 64명, 2005년에는 67명 수준을 유지하던 서약자수가 2006년도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여 114명으로 증가해 있다. 이후 2007년에는 77명, 2008년에는 105명, 2009년에는 98명, 그리고 2010년에는 82명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2005년도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신기증등록인 중 타지역 인원 37명을 제외한 충북도내 437명의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청주가 289명으로 가장 많고 청원 49명, 보은 16명, 괴산 15명, 음성 13명, 영동 12명, 제천 13명, 진천 9명, 충주 9명, 증평 5명, 단양 4명, 옥천 3명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시신기증등록은 19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바, 2010년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의 19세 이상 인구를 비교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지역인구에 비례한 고른 기증을 보이는 반면 충주와 제천은 인구비율로 보았을 때 기증인수가 적게 나타났다. 또한 기증희망자의 성별분류에 있어서는 남성이 253명으로 여성의 221명에 비하여 32명이 더 많았다. 그러나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의 시신관리 대장을 살펴보면 실제로 2010년까지 기증된 시신의 성별은 남성이 143구, 여성이 56구로 남성이 많았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한 기증서약자의 연령분포는 30대가 2명, 40대가 29명, 50대가 104명, 60대가 136명, 70대가 161명, 80대가 33명, 90대가 9명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이들 중 7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Fig. 4). 같은 기간에 등록된 서약인의 가족 중 1인 이상이 동반하여 기증서약을 한 경우를 조사한 결과 부부가 함께 동반 서약한 경우가 92쌍으로 184명

Table 1. The distribution of registrants in Chungbuk province (2006~2010 year)

Region	N	%	Population	%
Cheongju	289	66.1	492,286	40.7
Cheongwon	49	11.2	119,990	9.9
Boeun	16	3.7	29,662	2.5
Goesan	15	3.4	32,073	2.7
Yeongdong	12	2.7	42,381	3.5
Eumseong	13	3.0	72,552	6
Jecheon	13	3.0	109,079	9
Jincheon	9	2.1	48,797	4
Chungju	9	2.1	164,173	13.6
Jeungpyeong	5	1.1	26,003	2.2
Danyang	4	0.9	26,710	2.2
Okcheon	3	0.7	44,619	3.7
Total	437	100	1,208,325	100

Table 2. Accompanying type of the donation registrants

Type	Registrants	Ratio (%)
Single	279	58.9
Couple	184	38.8
Offspring	11	2.3
Total	474	100

이었고, 이들 중 자녀 1인을 동반하여 등록한 경우가 있었다. 부부가 아닌 가족이 동반등록한 경우는 5가족에 10명이 있었다(Table 2). 가족은 같은 날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고 등록일자가 다른 경우도 그 차이는 수일에 불과하였다.

2. 화장유골을 인수해간 유족과 대학의 안치시설을 방문한 유족

납골시설을 방문한 유가족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전무 하였으나 2007년도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Fig. 2). 2000년에 5기의 유골이 모두 안치되었고, 2001년에는 7기의 유골 중에 4기가 유족에게 인도되어 3기의 유골이 안치되었다. 2002년에는 6기의 유골이 모두 안치되었으며 2003년에는 6기의 유골 중에 3기는 유족에게 인도되고 3기의 유골이 안치되었다. 2004년에는 8기의 유골 중에 2기는 유족에게 인도되고 6기의 유골이 안치되었다. 2005년에는 9기의 유골 중 1기는 유족에게 인도되고 8기의 유골이 납골되었다. 이때까지 납골된 기증인을 추모하고자 내방한 방문객은 없었다. 그러나 납골시설의 존재에 관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하여 2006년에 납골된 유골 10기중에서 1기의 유골에 방문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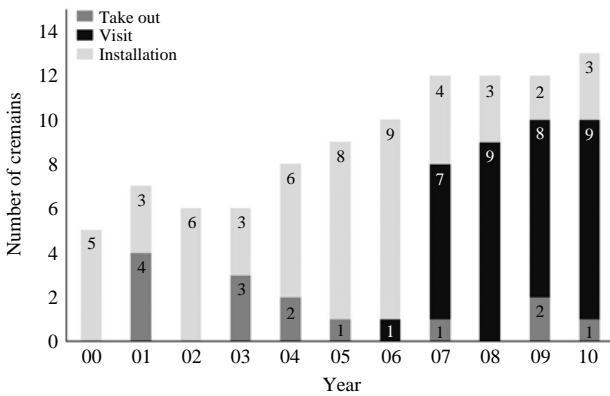


Fig. 2. Annual changes of installation or take out of the cremain and family visit to charnel house in CBN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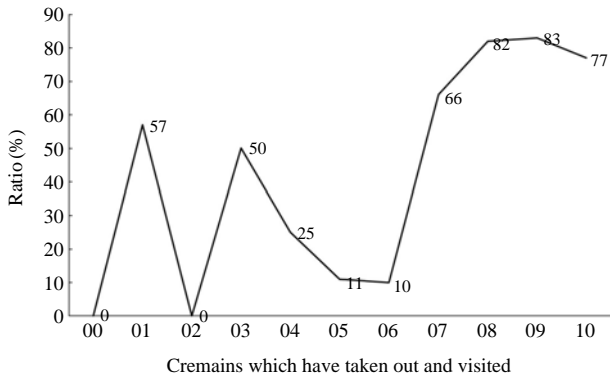


Fig. 3. Annual changes of the ratio of cremains which have taken out or visited by the family.

었다. 2007년에는 12기의 유골 중 1기는 유족에게 인도되고 11기가 안치 되었는데 그 중 7기의 유골에 유족의 방문이 있었다. 2008년에 납골된 11기의 유골 중 9기에 방문이 있어 82%의 방문율을 나타내었다(Fig. 3). 2009년에는 12기의 유골 중 2기는 유족에게 인도되고 10기가 안치 되었는데 그 중 8기의 유골에 방문이 있었다. 2010년에는 13기의 유골 중 1기는 유족에게 인도되고 12기가 안치되었는데 그 중 9기의 유골에 방문이 있었다.

2000년부터 시신기증 운동이 활성화되고 교내 납골 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유족의 방문이 2007년도를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통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시신을 인도받은 후 방부처리 등의 준비를 마친 다음 교육에 사용하는데 보통 3년~4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2006년도 이전 방문객이 전혀 없는 것은 2000년 이전에 인수하여 사용된 시신에는 행려 사망자 등 무연고 시신이 많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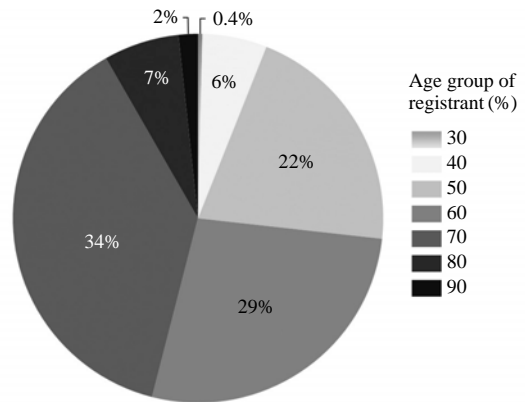


Fig. 4. This pie chart showing the age group of registrant at the time of registration.

Table 3. Educational background of registrants (2006~2010 total 128 registrant vs 2005 Korean statistics)

	Graduate	N	%	Statistics Korea (%)
Over College		16	12.5	25.4
Middle & High school		62	48.4	49.1
Below Elementary		50	39.1	25.5
Total		128	100	100

3. 시신기증인 설문조사

1) 최종학력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이하 50명, 중등학교 졸업이 27명이고, 고등학교 졸업이 35명, 전문대졸 이상이 16명 순이었으며 이 결과를 Table 3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도의 25세 이상 인구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Statistics Korea 2005).

2) 생활수준

재산상황을 묻는 문항에는 대부분 소극적으로 답하거나 답변을 회피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확보할 수 없었다. 다만 자신의 생활수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상위에 해당한다고 답한 경우가 6명, 중간이라고 답한 경우는 85명, 그리고 가난하다고 답한 경우는 37명이었다(Table 4). 이것은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으로서 “먹을 것 먹고 입을 것 입을 수 있으면 부자가 아니겠느냐”고 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3) 기증 동기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하고자 결정한 동기는 ‘사회에 기여 하고자’라고 답한 사람이 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죽음 이후의 일을 돌봐줄 만한 연고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7명이었고 연고자는 있지만 그 누

Table 4. Subjective socioeconomic class of the registrants

Class	N	%
Poor	37	29
Middle	85	66
Wealthy	6	5
Total	128	100

Table 5. Motive of the body donation

Motive	Registrants	Ratio (%)
Social contribution	98	76.5
Hate to indebted to relatives after death	23	18.0
No relatives to care after death	7	5.5
Total	128	100

Table 6. Person who care the funeral without body donation after death

Relation	N	%
Family member	107	83.6
Relatives	16	12.5
No one	5	3.9
Total	128	100

구에게도 신세지기 싫다는 답변은 23명이었다 (Table 5). 사회에 기여하려고 기증한 98명 중 4명은 자녀에게 자신의 사후처리를 맡기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4) 장례를 주관할 연고자

본인이 기증을 하지 않는다면 사망 후 누가 장례의 주관을 맡게 될 것인가에 관한 설문에는 직계가족(배우자나 자녀) 107명, 직계가족 이외의 인척 16명이었고,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5명이었다 (Table 6).

5) 기증철회의사

“혹시 기증을 철회하려고 하셨다면 무슨 일로 그러셨습니까?”라는 문항에는 기증에 따른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철회하겠다는 답변자는 없었다. 다만 가족들이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에는 철회하겠다고 밝힌 경우와 시신을 대하는 예의 등 학생 및 교직원의 태도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경우가 각각 1명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126명은 철회의사가 없다고 답하였다.

6) 기증에 따른 혜택

기증에 따른 혜택으로는 무엇을 원하는지 조사한 결

Table 7. Established year of charnel house in 10 medical schools

Medical School	Year
A University in Seoul	1998
S University in Gyeonggi	1999
C University in Chungbuk	2000
N University in Chungnam	2001
G University in Gangwon	2005
W University in Chonbuk	2006
J University in Gyeonggi	2006
P University in Gyeongnam	2009
H University in Chungnam	2010
E University in Daejeon	-

과 ‘어떠한 혜택이나 보상도 기대한 바 없다’고 답한 경우가 83명 (64.8%)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대학교병원에서의 무상진료를 원하는 경우가 43명 (33.6%), 금전적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답한 경우가 2명 (1.6%)이었다.

무상진료와 금전적 지원을 바란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더 자세히 물어 본 결과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진료의 수준은 농촌진료봉사와 같은 정도였으며 금전적 지원은 장례식때 참석하여 부조금을 내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 이었다.

4. 여러 의과대학의 현황 및 비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을 포함하여 10개교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설 의과대학인 E대학 외에 9개교에서는 대학의 납골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그중 2개교는 2000년 이전에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7개 대학은 2000년 이후에 납골당을 설치하였다 (Table 7). G대학은 납골시설을 증축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개 대학에 시신기증을 서약한 사람들의 수를 년도 별로 합산하여 본 결과 2005년도에는 1,402명, 2006년에는 1,995명, 2007년에는 1,625명, 2008년도에는 1,366명, 2009년에는 1,226명으로 총 7,614명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에 10개 대학에서 인수한 시신을 년도별로 합산하여 본 결과 2005년에 135구, 2006년에는 205구, 2008년에는 165구, 2009년도에는 152구로 모두 834구였다 (Fig. 5).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신기증 등록인 수의 변동 추세를 알아보고자 10개 대학의 자료와 충북대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10개대학의 시신기증등록인의 수는 2006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으며 (Fig. 6), 충북대는 2005년부터 약간의 기복이 있으나 추세선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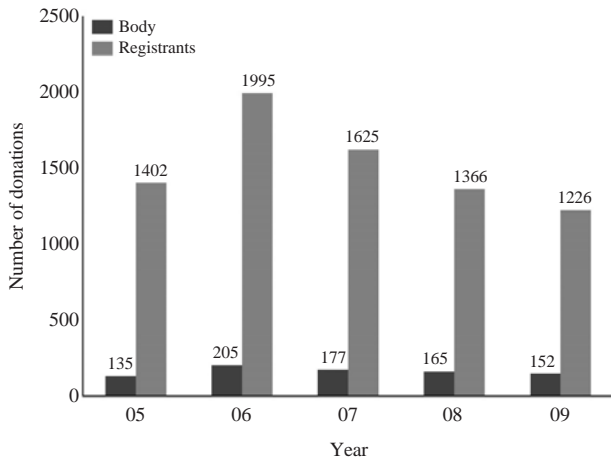


Fig. 5. Annual changes of the number of accepted body and registrant of the 10 colle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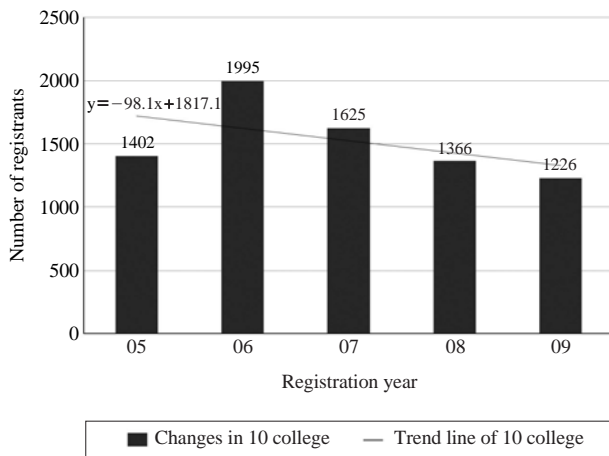


Fig. 6. Annual changes and tendency line of registrants of the 10 colle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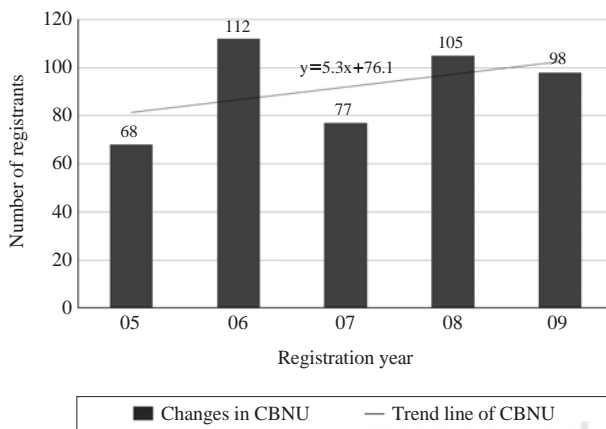


Fig. 7. Annual changes and tendency line of registrants of CBNU.

고찰

연도별 시신기증 등록인 수의 변화는 사회 일반의 정서와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신기증 운동은 2000년 이전에도 있었으나 유명인의 시신기증 효과로 일시적인 증가가 있었던 것 외에 자발적인 시신기증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후 좁은 국토가 지나치게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 되자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매장(埋葬)보다는 화장(火葬)을 권고하게 되었고 분묘를 조성하더라도 환경 친화적 대안으로서 공동납골이 가능한 가족납골묘가 등장하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관심과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묘지로 훼손되어가는 자연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일반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시신을 의학연구용으로 기증해줄기를 바라는 의과대학들의 요청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경과에 힘입어 시신기증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여 2000년도 초반부터 서서히 시신기증 서약인수가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 하였다. 이때의 증가는 그간의 일시적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Lee (2011)는 시신기증 활성화에 영향을 준 요인에서 전통적 유교관의 변화를 가장 우선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Jang (2003)에 따르면 복지시설노인의 66% 이상이 사후에 자신의 시신이 해부용으로 기증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장례의 방법으로 화장을 선택한 비율이 높아서(84%) 화장에 의한 장례방식이 정착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Kim (2011)에 의하면 국내의 화장 비율은 1991년에는 17.8%에 그쳤으나 2001년 38.3%, 2005년 52.6%, 2010년 65%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라북도 사망자와 시신기증인의 사망 시 거주 지역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시신기증인의 지역 분포는 도내 지역 분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Choi 등 2009). 마찬가지로 시신기증 서약자들의 충북도내 분포에 대한 결과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인구 비율보다 현저하게 적은 제천과 충주지역은 충북대학교와 거리가 멀고 관내에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과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이 각각 위치해 있었으므로 지역연고에 따라 그 대학에 기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시신기증을 서약한 사람들의 남·여 비율에 있어서 남성 253명과 여성 221명으로 32명의 근소한 차이를 보임에도 실제 시신을 기증한 예를 살펴보면 전체 199구의 시신 중에 남성이 143구

이고 여성이 56구이었다. 이렇게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많은 것은 유족의 입장에서 사망에 당면한 기증인의 성별에 따라 정서적 반응이 다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연구 조사가 더 필요하다.

시신기증 서약자의 서약당시 연령분포에 있어서 50대부터 70대의 등록인 수가 많은 이유로는 이들의 연령대가 막 은퇴하거나 황혼기에 접어드는 단계이기에 자신들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는 과정 중에 시신기증에 관하여 평소의 소신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80대부터 90대의 분포가 많지 않은 것은 인구가 많지 않고 시신기증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대와 40대에서도 기증서약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회활동 중에 주변에서 기증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대학들은 납골시설 설치와 추모행사 등으로 기증인과 기증을 완료하도록 실천한 유가족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신기증이 늘어나게 되었다. 부부, 또는 가족이 함께하는 기증등록을 하는 동반서약비율이 높은 점에서 시신기증이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신기증 희망자의 관리 실무에서 현재 각 의과대학에서는 시신기증등록을 마친 사람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해당 대학에 등록되었다는 의미로서 등록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등록증에 의하지 않고는 고인의 기증의사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으며, 기증의사가 있었음을 알고 있더라도 등록증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디로 연락을 해서 기증절차를 완료해야 하는지 알 지 못해 기증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기증인에 대한 자료의 통합관리 등을 위한 체계와 연구가 더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Choi SH, Han EH, Chai OH, Kim HT, Song CH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adaver donors. Korean J Phys Anthropol 22(3): 195-203, 2009. (in Korean)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20 year history of medical college. Cheongju, Creart, pp 30-33, 2007. (in Korean)
- Jang GS : A study on elderly's attitude about death at facilities the elderly's. Thesis of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2003. (in Korean)
- Kim SY : Remarkable change of funeral culture.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71396.html> 4. Apl 2011. (in Korean)
-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 50th Anniversary History of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pp 72-73, Seoul,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1997. (in Korean)
- Lee JJ : The study on impact factors and promotion remedies of body donation. Thesis of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2011. (in Korean)
- Lee YI : Database linkage study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Korean cadaver donors. Korean J Phys Anthropol 16(4): 205-211, 2003. (in Korean)
- Seoul National University : History of department of anatomy, college of medicine. Seoul, pp 25-27, 2002. (in Korean)
- Statistics Korea : Composition of population by educational attainment (25 years and over). Population & Housing Census Report 2005, <http://stat.cb21.net/home/main.do> 4. Apl 2011. (in Korean)
-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 Pictures of Modern Medicine in Korea for 120 Years. Seoul, pp 24-25, 2007. (in Korean)
- Yonsei University, Whole body for Korean medical students. The Severance Bulletin 12: 66-74, 1929. (in Korean)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strant of the Body Donation Program in Medical School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un-Jong Hwang, Eun-Young Lee, Yeong-Do Heo¹, Seok-Ryol Hurh², Hyun-Joon Sohn

Department of Anatomy, College of Medicine,

¹*Depart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College of Management,*

²*Department of Sociology, College of Social Scien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Abstract : In order to maintain the donation of the human bodies required for medical education and research, we investigate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have signed up to the donation program. The data registered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ere analyzed and then compared to those registered in 9 of other universities in Korea. In addition, a telephone survey was performed for 128 registrants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number of registrants was rapidly increased after 1999 and the donation of body was sufficient for medical education and research after 2005. The number of registrants of Chungbuk after 2005 shows gradual increase whereas 10 other schools shows slight decrease. The age of registrants at signing up to the program showed the largest proportion in seventies (33.9%), followed by sixties (28.9%) and fifties (22%). Multiple registration which means two or more registrants from one family represented 40.9%. After the use of cadaver and cremation, most of the bereaved family preferred to keep and visit the cremains in the charnel house of medical school more than to carry out the school. By the telephone survey, 71% of the registrants answered they are in middle or upper middle class of living, and 77% responded that the motivation was voluntary for the society without any reward.

Based on the present results we could expect the body donations will reasonably maintain. Most of donors have pure motivation without any reward from the school. Keeping their cremains at charnel house of the medical school were strongly favored so it is important to make enough facilities and management system as well.

Keywords : Body donation program, Registrants, Cadaver, Cremains, Charnel house